

진실을 말하는 용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성경말씀: 눅6:26

이번 여행을 가서 클리브랜드 Parkside 교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하나 Alistair Begg(1952년, 영국 글래스고우 출생, 67세), 1975년부터 목회, 1983년부터 지금까지 약 35년간 그 교회 목사, 5000여 명, Truth for Life 미디어 사역, 많은 방송국 설교 등 비틀즈 멤버 같이 생기고 영국식 발음, 호감을 주는 이미지, 나는 처음으로 미국의 열린 예배 참석, 지금까지 방문한 교회는 다 전통적인 침례교회 2000명 수용하는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 열린 예배 분위기 파악 가능, 한국의 경배와 찬양과는 달리 그래도 조용한 편이다.

목사님, 악기,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 스웨터, 청바지 등, 목사님도 물병을 들고 마실

회중들 가운데 타이틀 하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 거의 없음

찬송가는 하나도 부르지 않고 CCM을 함, 악보 없이 가사를 화면에 띄워주고 모두 따라서 함 나의 관심은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은 사무엘기상 2장 1-11절 말씀으로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날 나는 크게 실망하고 돌아옴

1. 설교는 강해 설교, 그런데 내용이 누구라도 그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뻔한 내용 한 마디로 신중하게 깊이 연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2. 간간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중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함, politically correct(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
3. 이런 설교를 통해 회중이 이렇게 불어나고 교회가 커진다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과 리더가 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함
4. 맥아더, 파이퍼, 제프리스 등과 같은 목사님들과는 차별이 있다. 거침이 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하려고만 한다.
5. 우리 교회와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6. 그리스도인과 기독교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왜 성경을 읽는가? 예수님과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고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 곧바로 산상수훈(마5-7장), 눅6장

메시아가 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열리려 함, 이런 왕국 참여 백성의 현장

예수님 사역의 특징 예고

특별히 예수님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 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심(마5:10-11)

즉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크다.

잘못된 것으로 핍박을 받으면 유익이 없음, 그러나 진리로 인해 핍박받으면 유익함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이 다 핍박을 받음(12)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눅6:22-23)

그리고 마지막으로 췌기를 박으신다(26).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거짓 대언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을 교회와 목사가 유의해야 한다.

진리의 역할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과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와 비진리가 분리되는 현상이 생긴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한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간다. 둘이 서로 공존하는 것 불가능

예수님의 말씀(눅12:51-53)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면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같이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지 않았다.(마귀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극심히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도 바울을 보라. 좋은 일만 있지 않다(고후4:8-11; 6:3-10), 특히 8절
예수님은 거짓 대언자들 언급: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는 제사장, 대언자, 그의 역할(겔44:23)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반드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과 대언자들은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였다.

유다 패망의 시기를 보라: 예레미야 대언자, 40년 이상 눈물로 사역

렘6:11-12, 이유(13-15)

거짓 확신(레7:4), 성전이 있으므로 안심하라

그리고는 우상숭배(7:17-20)

결론(렘5:30-31)

교회와 목사가 해야 할 일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

모두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나 목사는 없다. 있으면 그는 가짜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 지난해부터 애국 강연회, 2월 17일에는 자유 한국당 김진태 의원 초청,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기리기 강연, 2월 18일 출국, 미국 도착, 카톡에 뉴스앤조이에서 나와 교회를 비방하는
기사가 났다고 알려줌, 김진태, 김문수 등 극우 인사를 교회에 초청, 그들이 극우인가?

‘극우’라는 말은 폭력을 써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뜻함,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뉴스앤조이가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까지 간심, 놀랄 일, 크리스천 투데이 2018년 12월

“십수 년 전 ‘교회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매체 ‘뉴스앤조이’는, 그동안 과격한 논조 뿐 아니라 선명한
친북 및 중북 성향으로 끝없이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런데 이 매체는 단순히 이와 같은 성향을 띠는
것을 넘어, 주사파 민족해방전선(NL) 세력이 기독교 교란 및 파괴를 목적으로 교계에 심은 셀조직이라
는 정황들이 해당 자료들에서 무수히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계에서는 뉴스앤조이의 이
같은 행보는 주사파들이 교회 개혁을 빙자해 기독교계를 농단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친북 주사파 매체 뉴스앤조이의 악한 일 폭로, 한 네티즌은 뉴조에 대해 "주사파 빨갱이 사상 친이슬람
친동성애 등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짓을 서슴지 않는 반기독교 언론사라 생각한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도 얼마 전 뉴조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뉴조 후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뉴조에 대해 "동성애 옹호", "기독교 파괴 앞잡이" 단체

친북 중북 성향 뉴스앤조이가 나와 우리 교회를 비방한 것을 보니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다.

얼마나 미웠으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를 비방하려 할까?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감사하다.

교회 안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많다.

교회 목사가 되면 최소한 강단에서는 말이 예의가 있어야 한다.

요즘은 자칭 선지자라고도 한다. 선지자로 칭하면서 사람들 위협
어떤 목사는 아예 자신을 ‘예레미야라’고 한다.

그리고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고 비방, 너무 우스워서 그냥 두고 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며 정치를 하지 않는다. 내 일이 가장 좋다.

다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가
있도다.”(전3:1)

지금은 우리나라의 근본인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공산주의/사회주의는 마귀 시스템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경고하는 사람이 바른 목사이다.

교회가 갈라질까 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목사가 아니다. 샅꾼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좌파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교인들을 오도하는 목사들은 악한 자들이다.

목사와 교회가 유의해야 할 것

1. 목사는 언제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말해야 한다. 갈라지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생산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2. 그들이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니 한심하였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다. 어제 입었던 옷, 신발 그냥 신고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과거 우리 부모들은 헌금을 드리려고 돈고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넣었다. 목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성도들이 쟁게 된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한다.
3. 악보도 없이 노래를 부른다. 무조건 따라서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례한 일이다. 우민화 하는 것이다. 교회는 가르치는 장소이다. 음악도 가르쳐야 한다. 악보를 보고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매번 새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찬양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한다.
4. 성경 구절을 화면에 보여 주는 것을 성도를 서서히 죽이는 것이다. 도대체 성경책도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까? 신명기,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교회와 목사가 교인들을 영적 아기로 만들기에 교회가 세상에서 마귀의 군대와 싸움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바른 것을 가르치면 반드시 반대가 생긴다.

예수님, 구약 시대 대언자들, 신약 시대 사도들, 성도들, 공통적인 현상
반대가 생기니 타협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와 목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눅6:22,23, 26)을 기억하라.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된다.

진리: 질서가 있다. 규칙이 있다. 호불호가 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교회가 크게 되느냐, 사역이 크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예수님 사역이 크지 않았다. 예레미야 크지 않았다. 사도 바울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비굴하게 굴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 것은 글로 남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구원
이것이 예레미야의 유산이다. 바울의 유산이다.

이것이 나와 사랑침례교회의 유산이다.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을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